균열과 불안정, 저항 속 피어나는 성장의 가능성

광주비엔날레 눈여겨볼 파빌리온

〈20〉 광주역사민속박물관



외부의 영향을 독창적으로 재창조하는 브라질 특유의 예술적 사유가 광주에 펼쳐진다.

식민주의의 상처와 원주민의 기억, 생태계 파괴와 노동의 문제까지…. 서로 다른 예술가들이 역사적 긴장과 생태적 현실, 문화적 재창조 속에서 이어지는 삶의 실천을 각자 만의 시선으로 바라본다.

제16회 광주비엔날레에 처음 참여하는 브라질 파빌리온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광주역사민속박물관에서 '내일을 집어삼키는 것들: 움트는 브라질'을 주제로 열리고 있다.

아우도네스 니누와 브루나 레비가 공동 큐레이터를 맡았으며 아드리아나 바레장, 알렉스 체르베니, 아일라 타바레스, 신치아 마르셀리, 에스테반 다비, 에르벨치 데파스, 엘로이자 아르아드니, 이자벨라 오제다, 이벤스 마사두, 조나스 아하바우, 조시, 라이스 아마라우, 라이스 미하, 루카스 루가리뉴, 루이자 크로스망, 마나우아라 클란데스치나, 마르셀라 칸투아리아, 마르코스 샤비스, 마리아 리라 마르케스, 마



조나스 아하바우 作 '콜로니 기둥 또는 필터 기둥'

브라질 파빌리온 '내일을 집어삼키는 것들: 움트는 브라질'展…오는 15일까지





서로 다른 예술가들이 역사적 긴장과 생태적 현실, 문화적 재창조 속에서 이어지는 삶의 실천을 각자만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브라질 파빌리온이 오는 15일까지 광주역사민속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은 마나우아라 클란데스치나 作 '거대 뱀'(왼쪽)과 신지 나가베 作 '밥, 콩…나머지는 미스투라'

35명 작가 참여…원주민 기억·생태 위기·노동·정체성 복합적 조명
'안트로포파지' 철학 바탕, 동시대 직면한 변화·공존의 가능성 탐색

리아나 호샤, 마르시아 파우컹, 마루앙 시펠치, 나탕 브라가, 판멜라 카스트루, 파트리시아 아보치, 하야나 하유, 사라 하무, 벤투라 프로피나, 비센치 지 멜루, 비니시우스 겔하잉, 비비안 카쿠리, 신지 나가베, 왈라 카펠로부, 샤달루 투팡 제쿠페, 이유리 크루즈 등 브라질 전역에서 활동하는 작가 35명이 참여한 이번 전시의 핵심은 브라질 문화예술의 주요 개념인 '안트로포파지(Anthropophagy)'다.

본래 '식인'을 뜻하지만 브라질 예술에서는 외부의 문화와 영향을 흡수해 새로운 것으로 재구성하는 창조적 행위를 의미한다. 전시는 이 개념을 동시대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방식으로 확장한다. 무언가를 '집어삼킨다'는 것은 파괴하거나 없애는 행위가 아니라 갈등과 불안, 역사적 상처를 소화해 새로운 관점과 가능성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다.

또 '움트는 브라질'은 불안정과 균열 속에서도 새로운 생명과 가능성이 자라나는 모습을 상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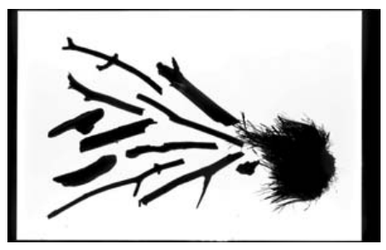
참여 작가들은 회화와 조각, 사진, 설치, 사운드, 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브라질 사회의 복합적인 현실을 보여준다.

마르셀라 칸투아리아는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의 '살롱 카레'에 주목한다. 르네상스 회화가 전시된 공간을 통해 서로 다른 시대와 지역의 기억이 교차하는 방식을 탐색, 시간과 예술이 일직선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고 중첩된다는 시각을 제시한다.

비센치 지 멜루는 사진 연작 '리미치 오브리쿠오: 비스듬한 경계'(2020)를 선보인다. 흑백사진 속 풍경과 추상적인 이미지, 상징적 서사를 결합해 현실을 바라보는 새로운 감각을 이끌어낸다.



마르셀라 칸투아리아 作 '제4회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미술 살롱'



비센테 데 멜로 作 'Limite Obliquo',



마르시아 팔카앙 作 '말란드라 나오 파라(Malandra nao para)'



샤달루 투팡 제쿠페 作 '할머니, 소년, 그리고 강'

조나스 아하바우는 알루미늄과 납, 청동 등 금속과 광물, 역청을 활용해 자연과 산업의 관계를 탐구한다. 서로 다른 물질을 결합하면서 가공되지 않은 자연의 재료와 인간이 만들어낸 산업 재료 사이의 경계를 살펴본다.

원주민의 기억과 정체성을 다루는 작품도 눈길을 끈다.

샤달루 투팡 제쿠페는 브라질 남부 팜파 지역의 원주민 영토에서 보낸 어린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억과 땅, 정체성이 맺는 관계를 조명한다. 조상의 터전에 뿌리내린 삶의 아름다움과 식민주의로 인한 영토·문화 말살의 상처를 함께 드러낸다. 마르시아 파우캉의 회화 연작 '건달은 멈추지 않는다'(2025)는 확장되고 변형되는 신체를 통해 역사 속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존재들의 힘을 보여준다. 멈춰 있는 듯한 상태에서도 변화의 가능성이 움트고 있음을 표현한다.

전시가 열리는 광주역사민속박물관의 장소성도 의미를 더한다. 문화적 정체성, 변화하는 사회의 모습을 기록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어서다. 북구 중외공원에 자리한 박물관은 1963년 광주공원에 설립된 도립광주박물관으로 개관, 1987년 현재 위치로 이전한 뒤 남도 민속문화를 중심으로 활동했으며 2020년 광주역사민속박물관으로 이름을 바꾸고 지역 근현대사까지 전시 영역을 넓혀오고 있다. /오복기자

